

고은 불교대학 소설



꽃과 같고 그 꽃잎 사이로 8만4천의 흰 광명이 있어 5도(五道)의 중생을 비춘다 하였다.

실로 눈부신 빛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 있다. 지옥이다.

바로 거기에 지옥의 여러 종류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다른 경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이 들어 있다.

부처를 보고 부처를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경전에 지옥을 말하는 것이 실로 기이한 바 있다.

지옥이 어디더나
찾고 찾아
내 마음속
거기 아니더나

누 군가가 실컷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마음 자체가 지옥임을 강조하는 노래를 남겼다. 하지만 실지로 수미산의 우주 구상 가운데서 결코 배놓을 수 없는 부분이 지옥이다.

인간계 삼부주 바로 밑, 그 지하 5만킬로미터에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는 죄와 벌의 극단적인 도성이야말로 일체의 자연 환경이 아닌 작위적인 극고의 공간이다.

여기 《관불삼매해경》만이 그곳을 말하고 있다가, 일찍이 현두교의 크라이나성진(聖眞)에서도 말하고 있다. 세계는 비취누신의 배꼽에서 태어난 연꽃에 견주어지며 수미산은 4개의 대륙을 마치 연꽃 네 꽃잎과 같다 하였다.

그런데 이런 연꽃에 견주어지는 세계일지라도 지옥은 그런 연꽃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닐 터이다. 지하 5만킬로미터 밑의 그 캄캄한 세계에서 첫번째로 만나는 곳이 등활지옥이다.

그 등활지옥 다음이 흑승, 그 다음이 중합, 규환, 대규환, 초열, 대초열 그리고

서 그야말로 악업으로 인한 극고의 벌을 받는 지글지글 타는 불의 아들이 끝날줄 모르는 그 무서운 광경이 하나의 풍경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일진대 언젠가 그 자신에게도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그런 공포의 고통이 이어지는 내용이라면 어찌하랴.

등활지옥부터 열관(羅官)이라 하기도 하는 옥졸 옥귀가 있다. 바로 그들이 지옥중생을 형벌로 다스리는 집행자이다.

소 대가리에 사람의 몸통을 가진 우주



나락(奈落)! 이라고 언제부턴가 말하는 그 지하의 고통이 풍부한 곳은 도대체 언제 소멸될 것인가.

지장보살이 그 지옥의 밑바닥으로 가 태어나서 지옥중생이 모두 지옥의 업고(業苦)를 다 마치고 난 뒤 마지막으로 부처가 된 다음, 그러니까 지옥이 텅 빈 다음에야 그도 보살로부터 마지막 부처가 되겠다는 비장한 서원을 한 것은 그가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의 그 무한한 고통받을 것을 자정할 것인가.

등활지옥의 깊이는 1만유순이다. 그것은 지구 위의 표면에서 지구의 한 복판까지 약 6천킬로미터일 때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알게 한다. 등활지옥 입구까지가 5만킬로미터라면 지구 자세로만 생각한다면 10개의 지구를 꿰거나나 염주처럼 꿰고 있어야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那由他) 그리고 불가사의(不可思議)는 10의 76승, 무량대수(無量數)는 10의 84승이다. 그러므로 무량대수조차도 그 수의 엄청난 자기한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그 자기한계라는 것이 우주 속의 무한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옥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지옥중생이 받는 고통의 형기(刑期)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아주 질박한 일이다.

우선 등활지옥의 1주야는 인간세계의 9백만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등활지옥의 형기는 5백세이다. 그것을 인간계의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9백만년에 365일을 곱하고 또 거기에 5백세를 곱한, 13425 억년이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길고 긴 형기에 대하여 인간이 살고 있는 땅덩어리나 별나라 등의 우주

지옥중생에 대한 첫 관심으로 불이 합두 무전보살이 다시 만났다 지장보살 서원을 따르려는 듯...

아 마도 삼부주에 사는 인간인 한 광부가 지하 3천8백미터 밑까지 내려간 것이 가장 깊어 내려간 기록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인간으로서 지옥에 떨어진 일은 없었어 아닌가.

1유순은 10킬로미터. 지옥 하나의 넓이는 한 번이 10만킬로미터의 입방체 크기로 된다. 지구가 4개를 들어갈 수도 되는 넓이도 크기가이다.

흑승 다음의 중합도 1만유순, 규환도 대규환도 초열도 대초열도 1만유순으로 깊다.

가 생성된 것이 150억년전이라면 지옥은 그런 우주 생성 이전부터 훨씬 먼저 생성되어 있었던 셈이다. 과연 우주는 지옥을 가장 먼저 만들어 놓았던 말인가.

왜 지옥을 먼저 만들었던 말인가.

“알지 못거라. 알지 못거라.”

그런 지옥의 소대거리 옥졸조차도 최방망이로 누군가를 한번 후려쳐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그 자신도 이런 지옥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 업보를 탄식하며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알지 못거라.”

마침 이런 지옥에 대한 첫 관심으로 세보살이 다시 만났다. 불이보살, 합두보살 그리고 무전보살들이 그들이었다.

지난 날의 그 어느 생이었던가, 저 인간계 삼부주 조선 서해안 바다 위의 무욕도에서 수행하던 그 전생의 도반이 아니었던가. 중생의 업을 다하고 난 뒤에도 그 도반의 인연은 털어내지 않고 아껴둔 것이었다.

“지장보살은 거룩한 분이시지요” 라고 무전보살이 마치 허튼수작을 하는 전달처럼 새삼스러운 말을 꺼냈다.

불이, 합두보살은 아직 그 말에 대한 대꾸가 없었다.

일찍이 지장보살은 육계 도리천에서 석가보살의 부축(부축)을 받고 새벽마다 항하사의 정(定)에 들어 중생의 온갖 근기를 관찰하였다.

아니, 석가모니부처님 당시에는 중생의 필멸에 따라 가르쳐야 하는 일에 미리 대비하는 일정을 짰던 제자노릇을 하다가 부처님 입멸 직후 지옥에서의 서원을 하고 출력 떠난 것이었다.

“가자... 가서 마지막 지옥중생으로 그곳을 비우고 나오자꾸나” 라는 서원이었다.

그림·조향숙

지옥 첫걸음

이 세상 어디에, 삼천대천세계 그 어디에, 아니 이 세상 밖의 그 어디에 극락세계가 있는 것인가.

그런 극락의 곳이 있다면 그와 반대로 극고(極苦)의 곳, 즉 지옥이 있을 것이다.

죄업이 깊은 중생이 가야 하는 그 지옥은 어디인가.

먼 옛날부터 원시공동체의 삶에서 악행을 저지른 자는 사형으로 제거시키거나 감옥에 가두어 격리시켜 왔다. 그런 감옥은 땅 위의 평면에 지은 것도 있으나 땅을 파서 만든 지하감옥이 심상이었다.

이들처럼 그런 지하감옥을 현재를 넘은 데까지 발전시킨 것이 지옥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지옥이란 고통만이 있는 세계이므로 누군들 그곳에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으나 바라는데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닐 터이다.

이 지옥이 인간세계 가운데서도 바로 사바세계 삼부주 바로 밑에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인간세계 아니 삼부주 인간계와 얼마나 긴밀한 이웃인가를 뜻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의 발 밑이 바로 지옥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악업이야말로 멀리 천상계나 다른 윤회 전전하는 중생계를 우회할 필요없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힘이 된다. 악과 악업이야말로 선(善)과 특같이 합이다. 다만 그 선의 힘과 악업의 힘은 장반대의 세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서로 멀고 먼 사이로 벌어지고 마는 것이다.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은 고대 중국의 동진(東晉) 용안(隆安) 2년 영초(永初) 2년(기원 368~421) 불타발타라의 번역으로 북쪽 대륙에 전해졌다. 전10권 12품으로 되어 있는데 전5권 관불삼품(觀佛三品) 제4에는 부처의 심장은 붉은 연

아비(無間)지옥이다.

이것을 꼽을어 8대지옥 혹은 8열지옥이라 한다. 이 8열지옥의 반대로 된 극고의 지옥이 8한지옥이다.

우선 8열지옥은 불교가 지옥세계를 설정한 기초환경인 인도아시아대륙을 반영하고 있다. 비록 지옥이지만 이 사실은 지상의 체험과 동떨어진 것이 될 수 없다.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는다. 습도도 엄청나다.

아래층의 지옥으로 내려가노라면 이 더위와 습도는 더욱 사나워지고 있다. 그래서 지옥의 가장 아래층인 아비지옥은 늘 불바다를 이루어 가히 지옥의 입화(業火)답게 늘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저 그 업화만이 구원길래(久遠劫來)로 타고 있는 불바다라면 그런 곳도 있을 법한 노릇이다. 그러나 그런 불바다 속에

(牛頭) 옥졸이 있는가 하면 말 대가리에 사람의 몸통을 한 마두귀신도 있다.

그들은 최방망이를 들고 지옥중생이 한 겨를의 숨 돌릴 사이 없이 고통을 받게 하는 형벌을 주는 것이다.

지옥! 여기야말로 한번 다녀가야 하리라. 여기를 다녀가지 않고 어떻게 부처를 이루리.

이런 캄막이 서 있는 지옥 입구에서 좀 더 내려가면 거기에 두번째 캄막이 서 있다. 그런데 그 캄막에는 아무런 말도 쓰여있지 않다.

굳이 새겨보건대 이 지옥의 극한으로 된 고통을 받는 세계는 어떤 말로도 위안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이미 말이 없어진 세계라는 사실을 표상하고 있는 지 모른다.

그런데 아비지옥 혹은 무간지옥은 세로 가로가 다 8만유순으로 되어 있다.

이미 지옥 여덟층 자체가 하나의 어마어마한 우주인 것이다.

이런 우주도 수미산 세계 전체에 대해서는 금룡의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여기에 이르러 심, 백, 천, 만, 억, 조까지는 중국의 수사(數詞)를 통해서 나뉘었다. 그러나 인도의 항하사(恒河沙)나 아승기(阿僧祇)에 이르면 그것은 무한대의 수가 될으로써 어디서부터 헤아려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게 된다.

억(億) 조(兆)를 지나면 10의 16승인 경(京), 해(垓), 지(秭), 양(億), 구(溝), 간(澗), 정(正), 재(載), 극(極)에 이른다. 백억이 10의 10승이면 극은 10의 48승이다. 그 뒤로는 인도의 수 세계로 감탄한다.

지옥이 어디더나 찾고 찾아 내 마음속 거기 아니더나

현대 불교 대학 직선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벽히 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준,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디피어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나 개인 부디피어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과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 사찰의 역사, 배움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 설의 전경,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기 말 거시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주소: 서울서촌동 22-1 강남8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